|  |  |  |  |
| --- | --- | --- | --- |
| 성함 | 홍세린 | 학번 | 2018190228 |
| **※ 반드시 파일명을 “성함\_학번\_멋사지원서” 형식으로 저장해주세요.**  ex) 권규리\_20xxxxxxxx\_멋사지원서.docx | | | |

|  |
| --- |
| 1. 지원동기 (1000자 이내) |
| [세상의 모든 금쪽이들을 위하여]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오랜 소망을 이제는 실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믿어 교육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육자를 꿈꾸며 자연스레 취약계층이 겪는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이 많아졌고, 매 방학마다 교육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거듭된 교육 봉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많은 취약계층 학생 수를 고려하면 교육봉사라는 작은 손길을 통해 넓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역시 교육봉사 캠프를 통해서였습니다. 진로 멘토링 캠프에서 ‘#미래일기그램’ 이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습니다. ‘#미래일기그램’ 은 멘티들이 인스타그램에 15년 후 꿈꾸던 직업을 갖게 된 자신의 하루를 상상하여 그린 그림과 글을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팀원들과 함께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했을 때는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획 과정에서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날 멘티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팀원들 중 누구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멘티들이 카톡으로 그림과 글을 보내면 그것을 복사-붙여넣기 하여 제가 직접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학생 멘티들은 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업로드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 흥미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멘토링을 마친 후, 피드백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미래일기그램’ 을 위한 웹플랫폼을 만들었다면 기획했던 프로그램이 제 기대만큼이나 멘티들의 흥미를 높이고,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사태 이후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만난다면 엄청난 가치창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뼛속까지 문과라고 믿었던 저는 세상의 모든 금쪽이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개발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육봉사가 아닌 프로그래밍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더이상 옛 말이 아닌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학생들이 틀에 박힌 공부에서 벗어나 폭넓은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멋쟁이 사자가 되어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백신이 될만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내고 싶습니다. |
| 2.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1000자 이내) |
| [경험 기부 플랫폼 ‘금쪽이닷컴’ ]  지난 학기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꿈만 같은 한 학기를 보내고 왔습니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충만한 행복이 무엇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복한 순간마다 제 생각의 종착역은 단순히 ‘행복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드넓은 세상을 누리고 있지만, 이런 경험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니기에 씁쓸한 마음이 늘 한 켠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디즈니월드에 갔을 때 극대화 되었습니다. 성인인 저에게도 디즈니월드는 그야말로 꿈속에나 존재할 것 같은 환상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우리나라 취약계층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선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능기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는 경험 기부 플랫폼인 ‘금쪽이닷컴’입니다. 익히 알려진 ‘1365 자원봉사포털’이나 ‘서울 동행’ 등 교육기회 제공 및 생계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플랫폼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쪽이닷컴’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환상의 나라 ㅇㅇ월드 체험’, ‘영화관 나들이’, ‘키자니아 직업 체험’ 등 경험 기반의 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를 매칭하는 웹서비스 입니다. 봉사자들은 자신의 성향을 고려하여 각 아동센터에서 업로드한 프로그램 소개를 읽고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됩니다. 활동중심 봉사에 부담을 느껴 봉사자 지원을 주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나의 봉사 성향 봉bti 테스트’, ‘맞춤 봉사 프로그램 추천’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쪽이닷컴’ 의 봉사 프로그램에 흥미를 유발하고 지원자를 유입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는 봉사자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봉사자들은 본인인증 절차와 지원서 제출 및 간단한 면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장의 생존이 급급한 아이들에게 하룻밤의 꿈같은 일회성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은 중단기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후 처음 느끼는 짜릿함 뒤에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들의 긍정적 정서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후에는 취약계층 아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에서 조차 소외되는 아동들에게 빛나는 하루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상업적인 서비스도 아니고 다양한 기술과 금전적 지원을 요하는 서비스이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팀을 이루어 제 일생 동안 ‘금쪽이닷컴’ 을 꼭 완성해내고 싶습니다. |
| 3. 인생에서 가장 몰입하여 도전했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1000자 이내) |
| [돼지런한 인플루언서 도전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과를 얻는 일은 언제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각종 SNS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영향력을 가지게 된 인플루언서가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 속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어보자’ 라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했습니다. 맛집 탐방과 사진 촬영이라는 취미를 살려 맛있게 먹은 음식을 소개하는 먹스타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먹스타그래머들이 이미 포화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ㅇㅇ이의 먹스타그램’ 이란 이름으로 평범한 글을 포스팅 하는 것을 보고 차별화된 저만의 캐릭터를 고안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도라에몽 캐릭터에서 착안하여 ‘도라에먹’ 이라고 이름 짓고, 그에 맞는 말투를 사용하여 글을 포스팅 한 결과, 현재 72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며 다양한 업체에서 협찬을 제공 받아 맛집을 소개하며 홍보하는 콘텐츠를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도전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은 콘텐츠 기획 능력, 그리고 꾸준함과 진정성의 중요성 입니다.  콘텐츠가 팔로워를 좌우하는 인스타그램 세계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미국 스타벅스 추천 메뉴 모음’, ‘케이크를 무게로 판매하는 카페’ 등 참신한 맛집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포스팅한 결과, 이전보다 팔로워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팔로워 이벤트, 이미지 보정 등의 전략을 통해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차별화된 컨셉을 고안해내고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했던 경험은 머릿속의 수많은 what if들을 참신한 서비스로 개발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좋아요 수가 곧 피드백이 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꾸준함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자주 게시글을 포스팅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록 좋아요와 팔로우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인스타그램 활동 역시 꾸준하게 소통하고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싫증을 잘내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기 어려워 했던 저는 어느새 1년 반 동안 ‘도라에먹’ 으로 활동하며 꾸준함으로 이루어 낸 성취의 달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 역시 꾸준함과 진정성을 요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제는 진심을 다해 팀원들과 소통하고, 난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을 갖춘 멋쟁이 사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
| 4. 본인이 달성하고 싶은 올한해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얘기해주세요. (1000자 이내) |
| [새로운 도전으로 채우는 2022년]  먼저, 제 손으로 직접 서비스를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교생실습을 통해 ‘카훗(Kahoot)’과 ‘퀴즈렛(Quizlet)’ 이라는 교육용 퀴즈게임 서비스를 처음 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던 날 카훗을 활용하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학생들도 반짝이는 눈으로 퀴즈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한 권의 교과서보다도, 한 명의 교사보다도 강한 서비스의 영향력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 하더라도 많은 사용자들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직접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는 경험은 제 인생의 장기적 목표인 ‘금쪽이닷컴’ 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구체화하는 기반을 쌓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특히 비전공자로서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멋사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수하여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개발 능력 뿐만 아니라, 머릿속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기획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존하는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기획과 관련된 이론을 공부하며 기획 역량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처음 미국에 가본 후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한없이 넓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는 제 전공이 저의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교육학도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전공과 관련된 교육자 라는 진로만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멋쟁이 사자처럼을 통해 저는 스타트업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개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보는 도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싶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 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 팀원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해커톤과 아이디어톤에 참여하여 다양한 생각을 가진 팀원들과 소통을 통해 서비스를 만들며 개발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독서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것입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면 참신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5. 팀원과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은 실제로 해당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1000자 이내) |
| [ 불협화음을 화음으로 만드는 공감의 힘]  파릇파릇한 새내기 시절 1년간 과 소모임 밴드의 보컬로 활동했습니다. 여느 밴드부와 같이 시작은 마치 청춘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러나 밴드 결성 후 얼마 되지 않아 평화롭던 저희 밴드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연습 날부터 드럼을 맡은 친구가 불참을 선언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곡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연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단체 합주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밴드 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누는 시간에, 그 친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몰아치는 과제와 드럼 레슨을 병행하며 합주 전까지 곡 연습을 끝내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밴드부원들은 그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들 자신의 사정만 내세우기 바빴습니다. 모두 악기를 처음 배우는 상황이었으며, 모두가 바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밴드 내의 불화가 생기고 연습 진도가 나가지 않아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보컬이라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롭던 저는 직접 드럼을 배워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기도 했고, 그 친구의 고충을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레슨을 마치자마자 저는 드럼을 맡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배워본 드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악기였습니다. 친구와 직접 만나 그동안 그 친구의 불만에 공감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그 친구가 느꼈을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해주었습니다. 저의 드럼 레슨 후기를 들은 다른 밴드부원들도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친구에게 힘들었겠다며 공감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의 불만은 눈 녹듯 사라졌고, 공감의 한마디는 열정을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이해를 받은 친구는 밴드를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연습한 결과 공연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제가 먼저 한 발짝 물러나 공감의 태도를 보이면 차가운 상대의 마음도 녹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 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되어 겪어보지 않은 이상 상대의 상황을 제멋대로 짐작하여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팀원과의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 통해 먼저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던 상대의 상황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공감의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음이 열린 상대방에게 제 의견을 전달한 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나갈 것입니다. |